

200-061.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졸업생의 취조상황에 관한 건

■ 193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송부한 문건으로, 1930년 3월 火曜會派 조선공산당 재조직사건 검거에 관련된 피의자 중 모스크바 소재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졸업한 權五稷(慶北 安東), 朴長松(咸北 穩城), 高四察(忠南 論山), 李永祚(慶北 安東), 金應基(慶北 醴泉), 朱青松(咸北 鏡城), 安秉珍(平北 義州), 趙今龍(忠北 忠州) 등 8명의 취조상황에 관한 보고서 수록

- 이들은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 결당 직후 당의 유학생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된 자들로서, 對露關係 및 赤化防止資料에 참고하기 위하여 入露後의 행동과 歸鮮事情 등을 취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.

1.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入露한 경위
 - 1) 入露의 동기 또는 유학생으로 명령한 자의 성명 및 여비의 출처
 - 2) 入露의 수속 및 경로
 - 3) 유학생으로 행동을 같이한 자의 동정
 2. 入露 후의 상황
 - 1) 入露 후 모스크바 도착까지의 상황
 - 2) 입학수속
 3. 입학 후의 상황
 - 1) 학비 및 기거의 상황
 - 2) 공산대학의 내용
 - 3) 조선인 학생의 상황
 - 4) 학과 및 수업상황
 4. 졸업 후의 동정
 - 1) 졸업 후의 과업
 - 2) 歸鮮의 과업
 - 3) 歸鮮의 경로 및 여비의 출처
 - 4) 歸鮮 후의 상황
 - 5) 생활비의 출처
 5. 조선공산당과 국제공산당과의 관계
 - 1) 조선공산당의 승인 및 자금관계
 - 2) 국제공산당 내의 조선인 당원
 - 3) 국제공산당의 동양적화책, 특히 조선에 대한 선전방법
 - 4) 국제공산당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명령계통
 - 5) 조선공산당의 국제공산당에 대한 보고계통
 6. 조선공산당의 최근정세
 - 1) 1928년 12월 국제공산당의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이 채택한 결의 '혁명투사인 농민 및 노동자에 대한 조선문제'(조선공산당 재조직에 관한 지령)의 영향 및 활동상황
 - 2) 당 재조직의 방법 및 이론
 - 3) 재조직문제와 派別관계
 - 4) 국외에서의 재조직운동과 派別투쟁 상황
- 이 문건은 일본이 공산당에 대처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拓務省 朝鮮部長, 內務省 警保局長, 警視總監, 台灣總督府 警務局長, 關東廳 警務局長, 京都·大阪府 知



事, 神奈川・兵庫・長崎・愛知・山口・福岡縣 知事, 外務省 亞細亞局長, 外務省 歐美局長, 在中公使, 天津・上海・奉天・吉林・哈爾濱・間島 總領事, 安東・鐵嶺・長春 鐵嶺, 朝鮮軍 司令官, 朝鮮憲兵隊 司令官, 各法院 檢事長, 各法院 檢事正, 各道知事, 各派遣員 등 많은 기관에 발송되어 있다.